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1.13)

1. 한일 무역갈등이 일본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 관련

□ [일본 기업 동향]¹⁾

- 일본화학공업은 자동차 부품 도금에 사용하는 크롬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대한국 수출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발표
- 동 회사의 이토(伊藤) 상무는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주를 터키, 중국 등에 빼앗기고 있다” 고 상황을 설명함.
- 한편 이 회사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격 인하도 검토중

□ [일본 언론 동향]

- 닛케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 한일 관계 악화가 일본 기업들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²⁾

2. 지소미아 종료 관련

□ [일본 정부 동향]³⁾

- 모테기(茂木) 일본 외무장관은 12일 지소미아 종료를 염두에 두고 밀리 미국 합참의장에게 “한미일 공조의 균열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게 이익이다. 한미일 3국의 강한 결속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
- 밀러 합참의장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미·일 공통 과제에 대응할 가장 좋은 방법은 미·일에 더해 한국도 포함된 형태로 강한 결속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국 측에 제대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변

1) 「「日韓摩擦で輸出減に拍車」—日本化学工業伊藤正博執行役員」 『日本経済新聞』 (2019. 11. 13).

2) 「韓国関連銘柄の上昇率—半導体関連が上位(日本株番付)」 『日本経済新聞』 (2019. 11. 13).

3) 「G S O M I A 含め日米韓連携の重要性確認 茂木外相と米軍議長」 『NHK NEWS WEB』 (2019. 11. 13).